

축사

『동아연구』 50집 발간을 축하하며

이태욱 | 제3대 소장

동아연구소가 1981년 2월에 설립되었는지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연구소와 인연을 맺었던 한 사람으로서 감개가 무량하다. 필자가 동아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시기는 연구소가 설립되어 몇 년이 지난 1980년대 중엽부터였다. 그 때는 동아연구소가 초대 소장이신 전해종 교수님과 다음 소장으로 이은 이상우 교수님께서 연구소 조직과 연구방향설정, 그리고 재정적인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셨기에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었고, 그 당시 이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라면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대표적 연구소로서 널리 알려져 있던 시기였다. 당시의 튼튼한 바탕이 그 이후 큰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연구소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는 1974년 3월부터 2004년 2월 정년퇴직까지 30년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봉직한 것도 자랑스럽지만, 특히 이 기간 중에 1989년 3월부터 1992년 2월 사이 3년간 연구소의 책임자로서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직 잊지 않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회과학도로서 경제학만이 아닌 여러 관련학과와 제휴하여 연구하고 사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 배우게 하는 한 계기였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나는 동아연구소에 더욱 애착을 가졌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아연구소의 설립목적에도 있지만 우리들이 한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어느 특정분야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다 방면분야에서 연구가 함께 이루어 져야 어떤 문제를 보는 안목이 편향되지 않고 폭 넓게 종합적 이해를 갖게 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동아연구소의 장점이라면 바로 이러한 interdisciplinary study를 할 수 있는 기반과 연구조직으로 발전하여 왔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연구소 초기에는 전해종 초대 소장님과 여러 분야에서 전문을 하신 운영위원들께서 지역연구에서 기초연구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 그리고 80년대 중반에 들어선 이후는 냉전시대가 막바지로 치 달고 있었다. 이 때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사회주의권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에 변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할 때 이었다. 이상우 소장님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권(당시는 공산주의권이라고 일컬었음)의 본질과 변화과정, 분단국가로서 중국-대만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관계문제, 더 나아가서 동서독관계 등 광범위하게 그 시기의 변화와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과 국제학술회의를 이끌면서 연구소를 발전시켜 왔다.

필자가 소장 직을 맡은 1989년 당시를 회고하면 분단국가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사회주의권이 흔들림과 붕괴의 길로 접어든 시기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의 급물살과 천안문 사태, 천안문사태로 인한 개혁의 일시적 후퇴와 뒤 이은 보수파 움직임의 제압하면서 개혁·개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기반구축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중국-대만 3국 사이 미묘한 외교관계와 대만과의 단교 및 중국과의 수교, 몽골의 개혁개방과 한-몽관계의 발전 등 우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에서도 변화를 겪던 시기였다. 사회주의

국가로 무렵 통일한 베트남까지 1986년 탈 이념적 대외개방정책을 주축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을 위하여 '도이머이' 노선을 공식화하면서 체제전환을 시도하고 있었다. 동북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로서 고통을 받고 있던 동서독에서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그 때까지도 당시 서독정부로서는 생각지 못하던 통일이 되었다. 즉 장벽이 무너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1990년 7월1일에는 경제통합을, 10월 3일에는 완전히 정치적 통일을 이룩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대부(代父) 역할을 하던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의 실패, 옐친의 등장과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연방을 이루던 11공화국의 독립국가 선언 등 전통사회주의 체제는 붕괴의 길로 가고 있을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주의권에서의 변화가 분단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긍정적인 미래의 길이 열리지 않을 가라는 가늠다란 희망(?)을 갖고 동아연구소에서는 남북한 관계문제를 포함하여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와 대만, 중국, 몽골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행하였다. 급변하는 사회주의권의 붕괴내지 개혁개방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솔직히 말하여 혹시 북한에서도 폐쇄적인 일인유일독재체제에 변화가 있 지나 않을까? 그리하여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더 건설적이고 화합의 방향으로 개선되어 혹시나 동서독과 같이 통일의 기회도 10~20년 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황된 꿈까지 갖게 한 시기였다. 그런데 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나름대로 스스로 변하면서 90년대의 어려움을 그나마 조금씩 잘 풀어가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세계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큰 것을 보면서, 한 민족으로서 북한은 왜 이다지도 어렵게만 되어 가는가를 생각할 때 안타까움이 더 한다. 북한도 스스로 변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동참을 하고, 남북관계는 탈냉전체제에서 벗어나서 서로 신뢰의 바탕아래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이 함께 변형하면서 갈

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남북관계, 한걸음 더 나아가서 통일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제 15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는데도 진정한 믿음과 신뢰에 바탕을 둔 실질적 관계개선에 아무런 진전이 없음을 볼 때 서글픈 한 마음을 어쩔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연구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의 한 구성원으로서 북한을 포함한 남북한문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도 앞으로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이념적 대치가 남쪽에서 아직 까지 이념문제로 연결되어 사회갈등으로 허송세월 할 때, 우리 주변 국가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이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력을 키울 시기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동아연구소가 90년대 들어서 더욱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탄탄하고 꾸준한 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증거로 최근 『동아연구』라는 글로 인터넷에 들어가니 여러 연구소들 중에 먼저 바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뜨는 것을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최근 신윤환 소장님의 책임 아래 “동아시아연구단”을 조성하여 공동 연구한 결과물로 연구총서 13권을 발간하였다는 것도 동아연구소의 큰 능력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아연구』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도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이다. 끊임없이 25년간의 긴 시간동안 계속 되어 이제 50집의 『동아연구』를 발간한다니 과거에 연구소와 같이 했던 한 사람으로서 경축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두서 없는 간단한 축하의 글을 쓴다. 앞으로 더욱 더 연구소의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